

3경기째 무승 KIA...그래도 '원투펀치' 호투에 흐뭇

양현종 6이닝 1실점 · 브룩스 4이닝 1실점...순조로운 스타트

울시즌 새롭게 맺 윌리엄스 외국인 사령탑 체제 '절치부심'

비록 연습경기 무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투펀치 양현종과 애런 브룩스의 안정감만큼은 KIA 타이거즈를 든든하게 했다. KIA는 지난 25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이로써 지난 21일 삼성전 2-4 패배, 23일 한화전 6-6 무승부를 더해 1무2패를 기록한 KIA는 연습경기 3경기째 무승 고리를 끊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결과보다 점검이 주를 이루는 연습경기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원투펀치를 맡아야하는 양현종-브룩스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우려를 덜었다. 양현종은 전날 NC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2안타 1볼넷만 허용한 채 1실점 경기를 펼쳤다. 1회말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버락 솔로포를 맞았지만 베테랑답게 이후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었다.

주자를 내보내도 즉각 후속타자를 잡아내 위기를 차단했다. 그보다 앞서 브룩스는 21일, 삼성전에 선발등판해 4이닝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안타를 4개나 맞았지만 삼진도 4개나 잡으며 상대타선에 밀리지 않은데다 볼넷을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두 선수 모두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지만 시즌 개막 전, 컨디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선보인 것. 양현종은 에이

스다운 면모를 뽐냈고 아직 KBO 리그가 낯선 브룩스도 무난하게 첫 선을 보였다.

KIA는 올 시즌 새롭게 맺 윌리엄스 외국인 사령탑 체제로 시작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선발진이 바탕이 된 야구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대표 에이스 양현종이 지난해 같은 활약을 펼치려야 하며 새롭게 합류한 두 외국인 투수의 기량이 중요하다.

시즌 개막이 늦어지는 변수 속에서도 두 선수는 착실히 컨디션을 유지했고 이에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벌인 모의고사에서 나란히 합격점을 받았다.

KIA의 또 다른 외국인 투수 드



류 가능 역시 지난 21일 함평 쉼터 야구장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연습경기 KT와 경기에서 선발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퍼펙트 피칭을 펼쳤다. 가능 역시 조만간 1군 연습경기를 통해 개막 전 실전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1

K리그 코너킥 최다 득점자는 '김신욱'

1983년 출범 이래 모두 7만3335번...최다 도움 물리나



K리그 역대 코너킥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린 선수는 김신욱이고 가장 많은 도움은 물리나가 기록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K리그 통산 코너킥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표했다.

1983년 출범 이래 K리그에서 코너킥은 모두 7만3335번 나왔다. 이중 득점으로 연결된 경우는 1063번으로 코너킥에서 골로 이어질 확률은 약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너킥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트린 구단은 울산 현대(110골). 이

어 서울(100골), 부산(98골), 포항(95골) 등이 뒤를 이었다.

K리그 최초의 코너킥 골은 1983년 5월22일 대우와 국민은행의 경기에서 나왔다. 후반 37분 대우의 코너킥에서 이태호가 올린 공을 정해원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2019시즌까지 K리그 코너킥 상황에서는 총 1063골이 나왔다. 득점 방법으로는 머리가 853골로 전체 득점 동약 80%를 차지했다. 이외는 다리도 득점한 것이 182골이다. 코너킥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된 것은 21번, 몸을 맞고 골이 된 것은 7번이다.

코너킥을 가장 많이 득점으로 연결한 선수는 김신욱이다. 김신욱은 프로 데뷔 2년 차였던 2010시즌, 광주 상무를 상대로 코너킥에서 첫 골을 넣었다. 그는 지난 2019시즌 7라운드 제주전까지 총 15골을 코너킥을 통해 넣었는데 이는 모두 헤딩골이었다. 이외에도 김현

석이 11골, 우성용이 8골, 양동현과 이근호가 각 7골을 코너킥을 통해 넣었다.

물리나는 코너킥에서만 18개의 도움을 기록, 해당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2009년 성남에서 K리그 무대를 밟은 물리나는 K리그 마지막 시즌인 2015년까지 매 시즌 빠짐없이 코너킥 도움을 올렸다.

K리그 최다 도움을 기록 중인 염기훈은 106도움 중 17도움을 코너킥에서 올렸다. 예닝요가 15도움, 신홍기와 권순형이 각각 14도움을 코너킥에서 기록했다.

코너킥에서 키커가 직접 골을 넣은 경우도 모두 21번이 있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포항, 성남, 전북 등에서 뛰 티아고는 K리그에서 코너킥 골을 2번이나 터트린 유일한 선수다. 티아고의 2번의 코너킥 골이 모두 2016시즌 나온 것도 흥미롭다.

인전은 코너킥 결승골로 무려 8승을 챙겼다. 가장 최근에는 2019시즌 22라운드 포항전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에서 곽해성의 크로스를 이재호가 헤딩으로 마무리, 2-1로 승리했다.

영 매체 "손흥민, 5월 중순 복귀 모리뉴 감독이 그리워해" 보도

군사 기초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손흥민(28·토트넘)을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영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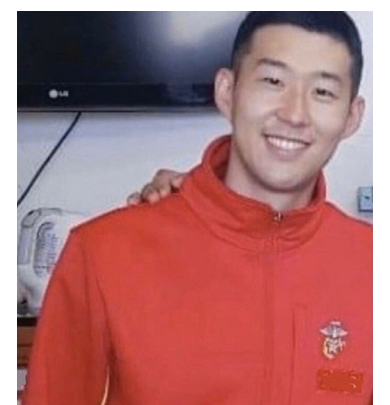
영국 '투크스포츠'는 24일(한국시간) '손흥민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모리뉴 감독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아스톤 빌라전에서 오른팔 골절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랐고, 이후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영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전면 중단됐고, 손흥민은 이 기간을 활용해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손흥민은 기초군사훈련과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혜택을 받았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해병대 9여단 91대대 훈련소에 입소, 3주간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있다.

매체는 "손흥민이 한국에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친 뒤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했다"며 "그는 5월 중순에 런던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리그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모리뉴 감독은 에이스 손흥민의 건강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투크스포츠는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 발표 직후 이야기 했던 것을 다시 조명했다.

당시 모리뉴 감독은 "우린 손흥민을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벤치에서 공격 옵션이 없어서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경기장에서 사용할 공격 옵션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모리뉴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의 건강한 복귀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매체는 "손흥민은 병역의무를 건강하게 마치고, EPL 재개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자농구, 2차 FA 협상 마감...박하나·이수연 결렬

여자프로농구(WKBL) 2차 FA 협상이 마감됐다. 박하나(사진)와 이수연은 협상이 결렬돼 3차 협상에 나선다.

WKBL은 25일 2차 F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김보미가 원 소속 구단 용인 삼성생명과의 1년 9000만원에 계약했다. 김보미는 지난 시

즌 연봉 1억원에서 1000만원이 깎였다.

삼성생명 소속이던 박하나, 부천 하나은행에 적을 두고 있던 이수연은 모두 협상이 결렬됐다. 두 선수는 3차 협상을 벌여야 한다.

3차 협상에서 FA 재자격자인 박하나의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이수연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제시 받은 4000만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굵직한 선수들이 이미 FA 계약을 마쳤다. 최대어로 꼽히던 박혜진은 아산 우리은행과 4년 3억원에 계약하며 잔류를 택했다. 김정



은과 홍보팀 역시 우리는 행과 3년 3억 원, 3년 9000만원에 각각 도장을 찍었다.

청주 KB도 집토끼들을 모두 지켰다. 심성영(3년 1억7000만원), 김소담(3년 8000만원), 김가은(1년 5000만원)이 모두 잔류했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